

데스크 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요즘엔 인터넷에서 글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눈물버튼도 다양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MZ 세대들의 당찬 발언에 울컥하고, 응원봉을 흔들며 그냥 밝게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시위 현장에 스레기 하나 남지 않은 사진에도 눈물이 흐른다.

세대와 세대의 연대

나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반성한다”며 울컥한 ‘어른’의 발언이 담긴 영상에 달린 10대, 20대들의 댓글에 몽클래졌다. “아저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를 지켜줄게요”, “기성 세대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이대로 뺏길 순 없으니까요.” “아저씨 울지 마세요. 계엄사태를 겪으며 어른 세대들이 어떤 시절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 다.”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추경호, 나경원,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거론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후 여당으로서 힘들었던 시절을 언급한 것이었다. 권력을 누리 지 못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부인하고 탄핵 표결을 거부했던 것이다. 참으로 통탄 할 일이다.
나는 80년 5·18계엄과 학살을 경험했다. 나는 중학 생이었다. 엄청난 혼란이 잠시 멈춘 그 날 트럭 위에 총 을 든 형들이 도청으로 모이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버스도 멈춰 있어서 나는 무리에 휩쓸려 도 청까지 걸어 갔다. 도청 앞 무진관에는 울음소리와 비 명소리가 난무 했다. 나무로 된 관들이 놓여 있었고 관 뚜껑은 열려 있었다. 어머니들과 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면서 자식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느 시 신 앞에서는 두 분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이 것 같 다고 확인하고 있었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 확인이 어려웠다. 마침내 몸에 있는 특징을 통해 한 분 의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했고 다른 어머니는 고개를 들 어 울리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희생자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왜 저렇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 이

기고



김윤하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찬바람이 매섭게 불며 겨울이 깊어가고, 거리에는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며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 다.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 전히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떠 오른다.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작은 손길은 추운 겨 울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희망의 씨앗이 된다. 기부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어렵다.
많은 이들이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남을 돕는 행 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눔이라는 것은 그 보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 해 진심으로 애쓰고 힘을 보태는 나눔은 도움을 받는

“아저씨, 울지 마요. 우리가 민주주의 지킬게요”

에서 열렸던 한강 작가 노벨상 축하 행사 ‘광주에서 온 편지’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지해학교 10대 학생들과 70대 어르신들이 함께 한강의 작품과 오월 광주와 비상계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흥겨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독일 교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즐거워했고 모두가 하나된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모두가 하나”라는 그 절정의 순간을 지난 주말 직접 느꼈다. 금남로를 가득 메운 수만명의 시민이 대형 전 광판을 통해 생중계 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했을 때 내 결에는 헬멧을 탄 장애인과 일행, 초등학교·중학 생 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가 있었다. 또 NCT 응원봉을 든 20대 여성 셋, ‘아모르 파티’에 열심히 몸을 흔들던 60대 여성들,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들고 있던 10대 소녀도 보였다. 하얗게 센 머리의 어르신들도 물론 함 께였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 신해철의 ‘그대 에게’를 목청껏 부르고 ‘탄핵’을 외치던 이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말에 환호성을 질렀고, 눈물을 흘 렸다.

칼바람이 부는 그날 저녁, 수많은 사람들과 여의도 마포대교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던 서울의 지인은 ‘밖 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시위를 하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괴물’이 되어버린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화가 좌 초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에 전해준 선물은 세대간 통합인 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집회 현장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 담긴 ‘플레이 리스트’를 공부하고 MZ의 상징인 응 원봉을 구입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어른 세대들이 피 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되새기며 역 사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

계엄 트라우마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

해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한참동안 그때 그 상황에 대해 나는 무섭지도,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은 아주 덤 덤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 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소환되었다. 만 약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나 계엄을 맞이 했다면? 가만 히 있었을까? 내가 무진관의 관속에 누워 있는 모습과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며 우는 환상이 머리 속에 그려 졌다. 후회될까? 자랑스러울까? 희생당하지 않는 나 는 비굴할까? 그 복잡한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이를 먹고 세월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되는 순간을 보면서 나는 그 기억이 그대로 소환되었다. 정 말 내 아이가 그 배안에 있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고 수 개월간 밥맛이 안나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다. 그 러면서 그때 무진관에서 실망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울었다. 시 신이라도 내 눈앞에 놓여 있어야지, 그래서 편안하게 안장하고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최악의 순간에 최소한의 위안이 된다는 것 을 깨달았다.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해 마음속에만 존 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12월 3일 윤석열의 그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다. TV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그 잔인한 열 굴을 보며 나는 또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 다. 나의 안위 보다는 아들 가족의 안방이 걱정되었다.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부당함을 깨닫고 있는 데 왜 권력을 갖는 자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제대로 된 단죄가

함께 나누는 마음, 따뜻한 연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변 화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 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뿌듯함,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
또한 나눔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르며 ‘선순환’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누군가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이웃은 도움을 받 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떤 방법으로 든 돕게 될 것이다.
필자 또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육시설에서 생 활하며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직장인이 되 어 다른 아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연말 캠페인 기간이 되면 사회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모금회 배분대상 기관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이 선 순환되는 사례를 직접 보기도 한다. 이렇게 나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곳에서, 더 따뜻한 온도로 존 재하게 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같은 나눔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응원봉 집회가 그 어렵다는 아이돌 팬덤을 통합시켰 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번 사태는 평행선을 그으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던 세대 간의 갈등을 불식시 키고 연대의 끈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는 점이 커다 란 결실이었다.
지난 10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립도서관을 취재했 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프로 그램 개발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관계자는 연령대 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지 만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통합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역설했다.

‘응원봉’이 상징하는 것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지난해 총장추세 현장에서 만났 던 풍경이 떠올랐다. 차량을 통제한 금남로에 장기판 이 놓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80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장기를 두는 모습은 왠지 몽클래졌다.
‘기성세대는 사회의 혈전(血栓)이 되지 말아야 한 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책을 읽다 발견한 대목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박혔다. 아이들에게 아 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 잡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 아볼 일이다.
이번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진태 의원이 “춧봉은 춧봉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발언하자 등장한 LED 촛봉에서 출발한 다. 이번에는 응원봉이 그 역할을 했지만, ‘소년이 온 다’의 한 대목처럼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들이 훼손 될 때’ 또 다른 ‘응원봉’이 나타날 것이고, 전 세대가 함께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 다는 검찰의 지일 속에 자식들까지 잘 살았다. 비록 한참 후에 내란죄로 감옥에 갔어도 요양하듯 있다가 금방 풀 려났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 수괴가 이 정도의 처 벌을 받았으니 나머지 그 공범들과 동조자들은 어찌했 는가? 솜방망이처럼 금도가 은도끼를 쟁서 마음대 로 권력을 누리고 축재를 하면서 잘 살고 있다. 전두환 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던 이들은 서울에 빌딩들을 한 채씩은 가지고 있다는 탐사보도를 본 적이 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한참 동안 권력을 누리고 부정축 재를 하다가 나중에 좀 처벌을 받아도 괜찮다. 자식들 에게 재산 물려주고 나는 감옥에 좀 들어가 있다 보면 또 사면받을 것이고 결국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잘 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그 일당이 모의를 하고 실행한 것이다. 군과 경찰은 물론 공무원 들도 가담했을 때 받는 보상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것 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국민들이 외침을 그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물론이고 단순히 실행한 자들까지 낱낱 이 밝혀야 한다. 그 수가 몇 백명 몇 천명이 되더라도 충 분한 시간을 두고 각 분야별로 철저히 밝혀서 단죄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하고, 법을 바꿔서 내 란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용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란에 가담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 대대로 부끄럽고 힘들게 살게 된다는 교훈 을 이번에 반드시 심어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명확하게 실어서 대대로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내란을 꿈꾸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社說

탄핵 정국에도 지역 현안사업 차질은 없어야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 속에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을 찾지 않을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지만 한법제판소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대통령 선거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정부의 행정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 탓이다.
탄핵 정국은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여 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 역 자치단체들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 라 새 정부 출범 전 지역 현안 사업의 차 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을 지금부 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전면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 사업은 광주의 경우 정부 주도 광주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협의회와 북항소풍물 교통난 해 소의 키를 쥐고 있는 도시철도 ‘상무·광 천선’ 건립이다. 통합 공항 이전협의회는 3년 만에 어렵사리 정부 주도로 지난 13 일 가동을 앞뒀지만 계엄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통합 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 남도, 무안군 등 3차 대화로는 해결 방안 을 찾지 못해 정부 주도로 해법 찾기에 나 섰는데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상무 -광천선도 사업비 6925억원의 60%를 국 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는다면 2032년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
전남은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국립의 대 신설이 성사 목전에 탄핵 여파를 입게 됐다. 최대 난제였던 국립의대 설치 장소 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해결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을 지금부 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광 주·전남 자치단체들은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지금까지 현안 사업 실현을 위 해 담당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차질없이 진행되 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말 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적극 보장을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산 환 경과 혜택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 동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육아 기 노동시간 단축제’ 같은 편의제도도 주 위의 눈치 탓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으 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 겠다고 천명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육 아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남성 노동자의 경우 육아 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니, 이래서야 아이낳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낳으면 역대 거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출산시 승진시켜주는 기업마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 에 따른 불이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 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모·부성 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

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비율은 46.7%로 정규·무기계약직 (89.2%)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후 전반적으로 퇴직 분위기여서’ (25.6%)·‘복귀해도 직장 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9.3%)·‘복귀 후 자리 없음’ 등으로 답 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비호적인 조직 문화를 꼬집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도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 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 남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불이익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묻는 질문에 남 성은 28.8%, 여성은 18.0%가 ‘그렇다’ 고 답했다.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남·여 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없 어야 한다. 날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 다는 분위기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 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 겨울나기 캠페인 소개. 겨울나기라는 말이 있다. ‘겨울을 나 다’의 명사형으로 추운 겨울을 대비해 준 비해서 살아남을 의미한다. 애벌레는 고 치를 틀어 겨울나기를 하고, 개구리나 뱀 은 먹이가 풍족하지 않은 겨울에 대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자 깊은 겨울잠을 잔 다. 따뜻한 남쪽으로 비행을 떠나는 새들 은 비행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좌우 날개 가 대칭적으로 털갈이를 하며 이때 겨울 것이 생기기도 한다. 산토끼나 멧돼지, 족제 비 등 야생동물들은 겨울에 털갈이를 하 는데 이 시기의 털은 여 름에 나는 털보다 두껍 고 촘촘해 보온력이 뛰 어나다고 하니 신기한 동물세상이 아닐 수 없다. 겨울나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낙 안민속마을에서는 초가지붕에 빗집을 엮 어 이영 잇기를 하고, 집집마다 추위지기 전 감장을 끝내고 겨울나기 준비를 한다.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시골 부모님들께 이 겨울을 지낼 장작이 부족하지 않게 델 감을 넉넉하게 준비해드셨고 더불어 집 마당에 터를 잡은 고양이 대가족들이 따 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한 숨습집도 곳곳에 마련해 두셨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